DBpia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雲門宗의 어록

Compilation of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by Suseonsa(修禪社) and Zen Analects of Unmun Sect(雲門宗)

저자 (Authors)
조명제
Cho, Myung-Je

출처 (Source)
역사와경계 90, 2014.3, 115-154 (40 pages)
History & the Boundaries 90, 2014.3, 115-154 (40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경남사학회
Pusan-Kyungnam Historical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91727

APA Style
조명제 (2014).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雲門宗의 어록. 역사와경계, 90, 115-15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10: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역사와 경계』 90(2014.3), 115~154쪽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雲門宗의 어록

조 명 제*

목차

Ⅰ. 머리말
Ⅱ. 운문종 어록의 수용 양상
Ⅲ. 운문종 어록이 『선문염송집』 편찬에 미친 영향
Ⅳ. 맺음말

국문초록

운문종은 북송 시기에 선종을 주도하였으며, 문자선이라는 새로운 선의 흐름을 제창하였다. 운문종의 선과 어록은 고려중기에 이르러 의천, 담진 등이 운문종의 대각회련, 혜림종본 등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려선종계에서 공안 비평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12세기말에 『설두염송』이 전국의 선승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사용될 정도로 문자선이 선문 일반에서 수용되었다.

수선사에서 편찬된 『선문염송집』은 운문종의 선이 고려에 수용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선문염송집』에 수록된 운문종의 착어를 전체적으로 분석,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착어의 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선승은 설두중현이지만, 법진수일, 남명법천, 대각회련 등도 대단히 많다. 이들은 운문종의 법계에서 설두중현 - 천의의회 - 혜림종본을 잇는 계열이며, 설두의 법계가 운문종을 주도한 것과 일치한다. 둘째, 운문종의 착어는 대개 설두 이전에 염고의 비중이 높았지만, 설두 이후에는 송고의 비중이 높아졌다.

셋째, 『선문염송집』에 수록된 송대 선적의 착어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임제종의 착어가 가장 많지만, 북송 시기에는 운문종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선문염송집』에 수록된 운문종 선승들의 착어는 대부분 逸書 자

* 신라대학교 사학과 교수 / woongok@silla.ac.kr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료로서 북송대 운문종의 어록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송대 선종사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 다섯째, 수선사가 『선문염송집』을 편찬하면서 수록한 운문종의 착어는 기본적으로 문자선의 이해와 관련된다.

주제어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수선사(修禪社), 운문종 어록(雲門宗 語錄), 문자선(文字禪), 설두중현(雪竇重顯)

Ⅰ. 머리말

송대의 선은 수행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公案禪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선문에 공유되는 고전으로서 수집, 선택된 선인의 문답 기록인 공안을 과제로서 참구하는 것이 수행의 중심이 되었다. 그 방법은 크게 文字禪과 看話禪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선은 공안의 비평과 재해석을 통해 禪理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代語, 別語, 頌古, 拈古, 評唱 등이 그 주된 수단이다. 문자선은 북송초의 汾陽善昭(947~1024)의 『汾陽頌古』에서 비롯되며, 그 정점에 이른 것이 雪竇重顯(980~1052)의 『雪竇頌古』와 그것에 대한 圜悟克勤(1063~1135)의 강의록인 『碧巖錄』이었다.

한편, 간화선은 특정한 공안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그 한계점에서 마음의 激發, 大破를 통해 극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모든 구도자가 실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開悟의 방법화는 원오의 제자인 大慧宗杲(1089~1163)에 의해 완성되었다. 아울러 간화선의 완성은 여러 가지 배경과 경위가 있지만, 『벽암록』의 평창 가운데 간화선으로 결실되는 싹이 드러났다.[1)]

이러한 송대 선의 흐름은 12세기에 이르러 고려 불교계에 점차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3세기에 수선사가 등장하면서 송대 선이 본격적으

1) 이에 대해서는 小川隆, 『續·語錄のことば 『碧巖錄』と宋代の禪』(교토: (財)禪文化研究所, 2010); 『語錄の思想史』(도쿄 : 岩波書店, 2011) 참조. 문자선이라는 용어는 覺範惠洪의 『石門文字禪』에서 연유한 것이다.(周裕鍇, 『禪宗語言』(항조우: 浙江人民出版社, 1999); 『文字禪與宋代詩學』(高等教育出版社, 1998)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로 수용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13세기에 간행되었던 송대 禪籍이나 고려 선종계에서 저술되거나 편찬된 선적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禪門拈頌集』(이하 『염송집』)은 수선사가 독자적으로 편찬한 공안집이며, 고려 선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문헌이다. 왜냐하면 『염송집』은 송대 선적을 토대로 한 자료이므로 고려 선종계에서 송대 선적과 공안선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 『염송집』에 대한 연구는 전체의 체재나 구성 문제에 그친 수준이거나, 편찬자 혜심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염송집』에 대한 저본 분석이나 사상사적 성격에 대한 접근도 거의 없었다.[2] 이러한 한계는 『염송집』이 기본적으로 송대 선적의 착어를 집대성한 것이므로 저본에 대한 문헌학적 기초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송대의 대표적인 선승들이 남긴 착어가 『염송집』에 어떻게 인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그 성과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4] 특히, 운문종의 선적인 『宗門統要集』(이하 『통요』)과 雪竇 7부집에 대해 밝힌 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설두 7부집을 제외한 운문종 선승들의 어록이 고려 선종계에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그것이 『염송집』의 편찬에 어떻게 활용되며, 그 사상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보조사상』 34(2010), 4~5쪽.

3) 기존 연구 가운데 椎名宏雄, 「『禪門拈頌集』の資料價値」 『印度學佛教學研究』 第51卷 第1號(2002)은 송원판 선적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염송집』의 자료 가치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된다. 다만, 이 글은 『염송집』에 대한 저본 분석을 하지 않았고, 고려 불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4)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보조사상』 34(2010);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 『불교학보』 62(2012);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한국사상사학』 42(2012);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宏智錄』」 『불교학보』 63(201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Ⅱ. 운문종 어록의 수용 양상

唐末 五代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롭게 등장한 송 왕조의 출현과 함께 불교, 특히 선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었다. 선종은 오대를 거치면서 五家, 곧 潙仰宗·法眼宗·雲門宗·曹洞宗·臨濟宗 등으로 분화되었다. 송 초기에 번성하였던 종파는 법안종, 운문종, 임제종이지만, 이 중 법안종이 북송 초기에 급속하게 쇠퇴하고, 운문종과 임제종이 선종을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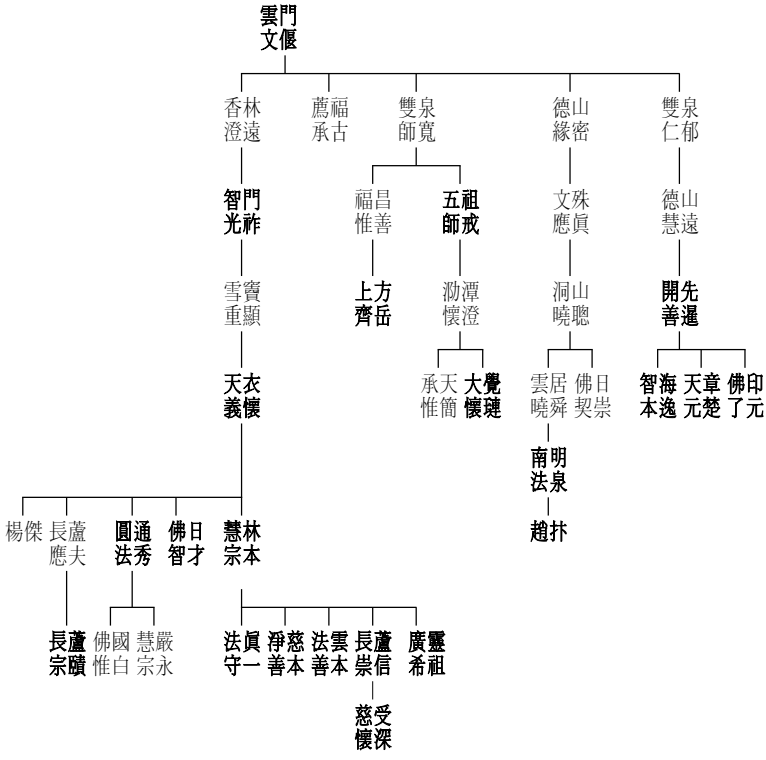
운문종은 雪峯義存의 법맥을 계승한 雲門文偃(864~949)에 의해 개창되었다. 운문종은 운문의 제자인 德山緣密, 香林澄遠(908~987), 雙泉師寬, 洞山守初(910~990) 등이 출현하여 종파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운문종을 대표하는 雪竇重顯(980~1053)과 佛日契崇(1007~1072)이 활약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운문종은 법계로 보면 4세인 설두중현에서 9세까지, 시기적으로는 11세기 전반에서 12세기 전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북송이 몰락하고 남송에 이르면 운문종의 세력은 두드러지게 쇠퇴하였다.[5)]

전성기의 운문종에는 설두를 계승한 天衣義懷(993~1064)의 문하에서 대표적인 선승들이 배출되면서 사상적인 흐름을 주도하였다. 천의의 문하에는 慧林宗本(1020~1099), 圓通法秀(1027~1090), 佛日智才, 楊傑 등이 등장하였다. 이어 종본의 문하에서 法眞守一, 廣靈希祖, 淨慈善本, 法雲善本(1035~1109) 등이 배출되었다. 그 외에 長蘆宗賾, 慈受懷深(?~1131) 등이 활약하였다. 설두 계열 이외에 五祖師戒, 開先善暹, 上方齊岳, 智海本逸, 佛印了元(1032~1098), 天章元楚, 大覺懷璉(1009~1090), 南明法泉, 趙抃(1008~1084)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활약하였다.

이와 같이 운문종은 북송대 선종계를 대표하는 선승들을 배출하였던 만큼 당연히 그들의 어록도 대다수 편집되어 간행되었다. 그러나 남송 이후 운문종이 급격히 쇠퇴하였고, 더욱이 간화선이 성행하면서 운문종

5) 永井政之, 「雲門文偃傳」『駒澤大學大學院佛教學會年報』 5(1971) 및 永井政之, 『唐代の禪僧 11 雲門』(교토: 臨川書店, 2008), 第1章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도〉 운문종의 법계도

의 어록은 선문 일반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운문종의 어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여기서는 고려 선종계에 수용되었거나 『염송집』에 인용되었던 운문종의 어록을 중심으로 서지적, 문헌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운문의 어록인 『雲門匡眞大師廣錄』(이하 『운문광록』[6])은 문인 守堅이 편집하였으며, 현존 『운문광록』의 행록 이후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록하

6) 설봉, 운문, 현사 등 세 선승에게는 모두 광록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설봉록과 현사록은 광록과 어록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廣本과 略本과 같은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광록이란 호칭은 양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파의 위대한 조사라고 하는 의식과 관련된다.(椎名宏雄, 「『雪峯廣錄』と『雪峯紀年錄』」『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14(1982), 61~6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였다. 이어 皇祐 5년(1053) 이전에 간행된 古刻 3권본이 있으며, 이는 『祖庭事苑』 주석의 저본이기도 하다. 이후 황우 5년에 이루어진 천의의회의 수정본, 熙寧 9년(1076)의 蘇瀾 刊正本, 紹興 13~15년(1143~5)의 圓覺宗演 교감본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종연의 교감본은 咸淳 3년(1267)에 覺心居士가 『古尊宿語錄』의 부록으로서 중간하였다.[7]

『智門光祚語錄』은 현재 단독 어록은 남아 있지 않고 『古尊宿語要』에 수록되어 있다. 『고존숙어요』는 紹興 8년~14년(1138~44) 무렵 鼓山의 曉藏主(僧挺守曉)가 당말에서 북송에 이르는 선승의 어록, 20家 22권으로 편집, 간행하였던 것이다.[8] 간행 동기는 스승과 제자인 竹庵士珪, 僧挺守曉 두 사람이 鼓山開祖 神晏의 어록을 비롯하여 세간에 유포되지 않은 어록을 집성하여 세상에 내놓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淳熙 5년(1178)에 鼓山의 소암 德最가 瑯琊慧覺, 五祖法演 2家의 어록을 더해 22가로 하고, 각 선승의 小傳을 각 권의 첫머리에 더한 『고존숙어요』를 간행하였다.[9]

長蘆宗賾의 『慈覺禪師語錄』은 현전하는 판본이 없었는데, 최근 시이나 코유에 의해 고마자와대학 도서관의 江田文庫에 소장된 필사본이 학계에

---

7) 『운문광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永井政之, 「雲門の語錄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宗學研究』 13(1971); 「祖庭事苑の基礎的研究」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4(1973), 椎名宏雄, 「『雲門廣錄』とその抄錄本の系統」 『宗學研究』 24(1982).

8) 宇井伯壽, 「古尊宿語錄について」 『第二禪宗史研究』(도쿄: 岩波書店, 1935), 473~509쪽.
柳田聖山, 「古尊宿語錄考」 『花園大學研究紀要』 2(1971).
柳田聖山, 「宋版古尊宿語錄調查報告」 『禪文化研究所研究紀要』 4(1972).
椎名宏雄, 「『古尊宿語錄』 正續諸本の系統」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13(1981).

9) 『고존숙어요』는 이후에도 계속 증보, 간행되었다. 嘉熙 2년(1238)에 鼓山의 晦室師明이 20家 4策에 새롭게 편집한 80家의 『續刊古尊宿語要』 6策을 합쳐 전 100家 10책으로 간행하였다. 正集 20家가 전집인 것에 비해 續集 80가는 초록이다. 이어 咸淳 3년(1267)에 杭州의 覺心居士가 22가에 佛眼, 眞淨, 雲門 등 3가를 더해 重刊하였고, 阿育王山廣利寺의 物初大觀이 쓴 서문을 붙였다. 이후 25가에 『黃梅東山錄』, 『臨濟錄』, 『東林和尙雲門庵主頌』 등이 더해져 간행되었고, 더욱이 9가의 어록이 더해져 증보 개편된 36가 48권의 『古尊宿語錄』이 永樂 2년(1404)에 淨戒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이 大明南藏에 입장되었고, 영락 11년(1413)에 대장경의 일부로서 간행되었다.(椎名宏雄, 위의 논문, 150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소개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10] 이 어록은 시자인 祖大 등이 기록하였으며, 大觀 3년(1109)에 쓴 呂希哲의 서문이 있어 편찬과 간행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전체 구성은 서문과 종색이 주석한 사찰마다 행한 법어가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卷上에 長蘆崇福禪院에서 행한 상당, 소참 등 34편이, 卷中에 洪濟禪院에서 행한 상당, 소참 등 197편, 擧古 50편이, 卷下에는 상당 등 80편이 기록되어 있다.

慈受懷深(1077~1132)의 『慈受深和尙廣錄』 4권은 시자인 善淸 등이 편찬하고, 韓駒의 서문을 붙여 紹興 5년(1135)에 간행되었다. 전체 구성은 권1에 資福禪寺語錄, 焦山禪寺語錄, 慧林禪寺語錄이, 권2에 偈讚과 보유인 擬寒山詩, 권3에 慧林禪寺陞堂頌古(上), 권4에 頌古(下)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면 운문종의 선이 고려 선종계에 미친 영향이 어떠하며, 운문종의 어록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자료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운문종의 선이 언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단편적인 자료와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신라말에 설봉의존의 법을 이은 大無爲, 齊雲靈照, 福淸現訥 등이 존재하였으며, 法眼文益의 제자에 慧炬, 靈鑑 등이 활동하였다. 또한 959년에 永明延壽의 문하에 智宗(930~1018) 등 36명의 고려승이 유학하였으며, 지종은 연수의 법을 잇고 970년에 귀국하였다.

주지하듯이 설봉의존의 문하에는 玄沙師備(835~908), 운문문언 등이 있다. 또한 현사사비의 문하에 법안문익이 법안종을 개창하였으며, 영명연수는 법안문익 - 天台德韶의 계보를 이은 선승이다. 이와 같이 신라말 이후 고려초에 걸쳐 설봉계, 법안종의 영향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러한 흐름이 고려 불교계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李資玄(1061~1125)의 경우이다.

> 깊이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며 오로지 禪寂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일찍이 『雪峰語錄』을 읽다가, 그 가운데에 '시방 세계가 하나의 正眼인데, 너는

10) 椎名宏雄, 「『慈覺禪師語錄』(翻刻)」 『駒澤大學禪硏究所年報』 20(2008).
椎名宏雄, 「長蘆宗賾撰『慈覺禪師語錄』の出現とその意義」 『印度學佛敎學硏究』 57卷 2號(200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어디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가?'라는 데에서 크게 깨달았다. 그로부터 부처와 조사의 言敎에 막히는 것이 없었다.[11]

위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이자현이 『설봉어록』[12]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인용된 『설봉어록』의 구절은 설봉이 자주 말하는 것으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대상인 色境의 세계가 어느 결정적인 경험의 격발을 계기로 세계와 절실한 일체감을 경험함으로써 본심을 깨닫는 것이다. 대상(境)과 자기가 일체가 되고 대상을 보는 눈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시방 세계가 하나의 正眼(盡乾坤是一个眼)'이라고 표현하였다.[13]

더욱이 이자현은 운문문언과 설두중현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14] 설봉의 문하에서 운문종과 법안종이 형성되었는데, 이자현은 설봉, 운문, 설두 등 설봉계와 운문종의 사상적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이러한 면은 이자현의 저술인 『禪機語錄』, 『追和百樂公樂道詩』, 『歌頌』, 『布袋頌』 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문헌은 현전하지 않지만 제목으로 보아 송고가 적지 않게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15] 북송대에 『雪竇頌古』가 대표적인 송고로서 선문에서 회자되었던 만큼 운문종의 사상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세기 후반에 이르면 고려 불교계에서 운문종의 선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慧照國師 曇眞과 大覺國師 義天의 入宋 유학을 통해 잘 드러난다. 담진은 文宗 9년(1076)에 송에 들어가 3년 정도 머물렀다. 그의 입송은 약 50년간 단절되었던 고려

11) 金富轍, 「眞樂公重修淸平山文殊院記」 『朝鮮金石總覽』(이하 『금석』) 上, 326쪽. 「探究佛理, 而偏愛禪寂自稱. 嘗讀雪峰語錄云, 盡乾坤是箇眼, 汝向甚處蹲坐. 於此言下, 豁然自悟. 從此以後, 於佛祖言敎, 更無疑滯.」

12) 『설봉어록』은 본래 1032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이어 元豊 3년(1080)에 福州知事 孫覺이 雪峰山을 방문하여 어록이 산란된 것을 보고 재편집하여 『雪峰眞覺大師廣錄』으로 간행하였다.

13) 入矢義高, 「雪峰と玄沙」 『增補自己と超越』(도쿄: 岩波書店, 2012), 36~37쪽.

14) 慧素 述, 「祭淸平山居士眞樂公之文」 『금석』 상, 328쪽, 「自爲主盟, 雲門之髓, 雪竇之英, 囊括玄機, 終始發明.」

15) 趙明濟, 「高麗中期 居士禪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 『역사와 경계』 44(2002), 110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와 송의 외교가 재개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때에 그는 임제종의 淨因道臻(1014~1093)을 비롯한 송의 선승들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다.[16]

그런데 도진은 본래 浮山法遠(991～1067)의 법맥을 계승하였지만, 東京 淨因禪院에서 머물면서 大覺懷璉(1009～1090)에게 나아가 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정인선원의 후임 주지로 주석하게 되었다. 대각회련은 『宗門遮英集』을 편찬한 承天惟簡과 함께 泐潭懷澄의 법을 이었던 운문종의 선승이다.

정인선원은 皇祐 원년(1049)에 仁宗이 창건한 절이며, 본래 圓通居訥에게 머물게 하였으나, 거눌이 병으로 사양하고 회련을 대신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회련이 皇祐 연간(1049～1054)에 東京 淨因禪院에서 머물면서 仁宗의 두터운 귀의를 받았다. 이어 운문종의 혜림종본도 북송의 수도 開封을 대표하는 선찰이었던 慧林寺[17]에서 주석하였다.

그러므로 정인도진과 대각회련의 관계나 북송기 운문종의 현실적인 위상을 고려한다면 담진은 운문종의 선승들과 교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 담진은 당시 문자선의 동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였고, 운문종의 선적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은 비슷한 시기에 입송 유학하였던 의천(1055～1101)이 운문종의 대표적인 선승들을 만났던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된다. 의천은 宣宗 3년(1086)에 송에 들어갔는데, 화엄종만이 아니라 선종의 선승들을 찾아가 교유하였다. 그는 상국사에 머물던 혜림종본을 찾아가 종본에게서 설법을 들었다. 또 의천이 항주의 淨源에게 화엄학을 배우고자 하므로 哲宗이 楊傑을 동반시켜 가던 중에 金山에서 불인요원을 만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의천은 다음 해에 귀국하는 도중에 천태산의 智者大師 탑을 참배하였고, 이어 明州에 이르러 育王廣利寺의 대각회련

16) 鄭修芽, 「慧照國師 曇眞과 '淨因髓' -北宋禪風의 수용과 高麗中期 禪宗의 부흥을 중심으로-」『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1994).

17) 혜림사는 본래 개봉의 최대 사찰이었던 相國寺의 64院을 2禪 8律로 재편되면서 元豊 5년(1082)에 智海寺와 함께 창건된 선찰이다.(『禪林僧寶傳』 권14, X79-521c)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을 찾아가 그의 설법을 들었다.[18]

이와 같이 그가 관심을 갖고 방문한 승려가 화엄종, 천태종에 이어 선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의 비문에서 의천과 깊은 교류 관계를 가진 선승들이 대개 운문종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또한 그가 만난 혜림종본과 대각회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19] 비슷한 시기에 담진과 의천이 이들을 만난 것은 당시 북송의 운문종을 대표하는 선승이라는 점과 함께 송 황실의 두터운 후원을 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주지하듯이 의천은 입송 유학을 통해 많은 불전을 구해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선적도 포함되어 있었다.[20] 그가 주로 운문종의 선승들과 교류하였던 만큼 이러한 선적 중에 운문종의 어록을 비롯한 문헌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新編諸宗教藏總錄』 권3에 계숭의 『輔教篇』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21]

---

18) 林存 撰,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幷序」 『금석』 상, 331~332쪽, 「後自詣相國寺, 叅元炤禪師宗本, 元炤昇堂說法, 繼以說偈云, 誰人萬里洪波上, 爲法忘軀勸善才, 相得閻浮應罕有, 優曇花向火中開. (中略) 差主客員外郎楊桀伴行. 過金山 謁佛印禪師了元, 稀世之遇, 如夫子見溫伯雪子, 目擊而道存. (中略) 及到明州, 往育王廣利寺, 謁大覺禪師懷璉.」

19) 혜림종본과 대각회련과 교류한 사실은 『대각국사문집』에도 남아 있다. 「大宋阿育王無覺子懷璉上」(『한국불교전서』(이하 『한불전』) 4, 587~588쪽), 「大宋金山長老佛印大師了元上」(『한불전』) 4, 588쪽), 「禪院宗本上」(『한불전』) 4, 588쪽).

20) 林存 撰, 위의 글, 『금석』 상, 332쪽, 「自古聖賢越海求法者多矣, 豈如僧統一來上國, 所有天台·賢首·南山·慈恩·曹溪·西天梵學, 一時傳了, 眞弘法大菩薩之行者.」

21) 고려불교계에서 중시한 『宗鏡錄』의 수용도 담진과 의천의 입송 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종본이 熙寧 연간(1068~1077)에 『종경록』을 선양하였고, 그의 소개에 따라 元豊 연간(1078~1085)에 황제의 동생 趙頵(1056~1088)이 간행하였다. 이어 元祐 6년(1091)에 종본의 法嗣인 大通善本(1035~1109)에 의해 두 번째 개판이 이루어졌다. 이때 『종경록』의 간행은 법안종이 쇠퇴한 후에 꽤 오랫동안 잊혀졌던 『종경록』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려불교계에서 『종경록』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것은 心聞曇賁이 편찬한 『宗鏡撮要』 1권을 1213년에 수선사에서 혜심에 의해 중간되었다든지 『종경록』이 40여 곳이나 인용된 『大藏一覽』(10권)이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세기 후반에 운문종의 선승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고려불교계에서 운문종의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운문종의 어록을 비롯한 선적이 수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2세기 후반에 이르면 선종계 일반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明宗 9년(1179)에 예천 龍門寺의 談禪法會에서 구산문도 500인을 대상으로 斷俗寺의 孝惇이 『景德傳燈錄』, 『雪竇拈頌』 등을 강의하였던 것에서 잘 드러난다.[22] 『설두염송』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설두의 염고집과 송고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선승을 초청한 담선회에서 『설두송고』와 『설두염고』가 대표적인 선적으로 강의된 것은 그 만큼 공안 비평에 밝은 선승들이 존재하였고, 나아가 선문 일반에서 문자선에 대한 폭넓은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운문종의 어록이 수용되었던 양상은 당시 운문종의 선적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었던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운문종의 선적을 대표하는 『宗門統要集』(1093년, 이하 『통요』), 『宗門遮英集』(1038년)과 같은 공안집, 『祖庭事苑』(1108년)과 같은 훈고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이 고려에 수용되었다. 『통요』는 傳燈史書를 총괄한 것이면서 공안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의 선승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선적으로 중시되었다. 이러한 『통요』가 고려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염송집』의 편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23]

『종문척영집』은 承天惟簡(생몰년 미상)이 392명에 이르는 선승들의 공안 1670칙을 모아 편집한 상중하 3卷 3冊의 공안집이다.[24] 편찬자인 유간은 雲門文偃 – 智門師寬 – 五祖師戒 – 泐潭懷澄으로 이어지는 운문종

22) 李知命, 「龍門寺重修碑」 『금석』 상, 409쪽, 「己亥年創寺工畢, 會九山門學徒五百人, 設五十日談禪會, 請斷俗寺禪師孝惇, 敎習傳燈錄·楞嚴經·仁岳集·雪竇拈頌.」

23)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 70~79쪽.

24) 이 책에 수록된 선승은 운문종 출신이 가장 많고, 『경덕전등록』(1004)과 『天聖廣燈錄』(1036)에 볼 수 없는 문답이 많이 채록되어 있다. 또한 두 전등록 이외의 자료에서 뽑은 730칙은 운문종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 가장 많다. 이 책은 皇祐 3년(1051)에 陳碩의 後序를, 皇祐 5년(1053)에 閔從周의 序를 얻어 杭州에서 간행되었다.(椎名宏雄, 「解題」 『禪學典籍叢刊』 第6卷 上(교토: 臨川書店, 2001), 421~422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법맥을 이은 인물이다.[25] 그의 스승인 늑담은 설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으며, 또 문하의 제자로 대각회련이 있다. 이 책은 전등사서에서 송고집, 염고집과 같은 착어를 모은 문헌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26] 따라서 이 책은 공안 비평이라는 문자선이 성행되면서 송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13세기에 다양한 공안집이 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睦庵善卿(생몰년 미상)이 편찬한 『조정사원』은 선문 조사의 어록과 선적 등에서 약 2400語句를 대상으로 訓詁한 것이다. 전8권 가운데 권1에서 권4까지 주석의 대상이 된 것이 雲門과 雪竇의 어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운문종의 선에 대한 이해와 깊이 관련된다.[27] 이러한 『조정사원』이 고려 불교계에서 수용되어 주목을 받았던 양상은 다양하게 확인된다.

먼저, 志謙의 『宗門圓相集』(1219년)은 육조 혜능의 法嗣인 南陽慧忠으로부터 북송의 운문종 선승인 睦庵善卿에 이르는 46명의 조사에 의한 원상의 機緣 100여 사례를 채록하였다. 그런데 마지막의 목암에 관한 인용은 『조정사원』 권2의 원상 관련 조항과 관련된다. 아울러 현전하지 않지만, 일연이 8권본 『조정사원』을 다시 30권본으로 편찬하였던 것도 13세기 선종계에서 『조정사원』에 대한 사상적 관심이 적지 않고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28]

『조정사원』의 영향은 瑞龍禪老 連公의 『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이하 『증도가사실』)에도 드러난다. 이 책은 『南明泉和尙頌證道歌』에 대한 훈고서이며, 1248년에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되었다. 『증도가사실』은 설두의 어록과 『조정사원』이 인용되어 있고, 『조정사원』과 같은 성격의 주석서 로 보인다.[29]

---

25) 『建中靖國續燈錄』 권6(『大日本續藏經』 78, 673쪽), 西口芳男, 「黃龍慧南の臨濟宗轉向と泐潭懷澄 - 附錄 『宗門摭英集』の位置とその資料的價値」 『禪文化研究所紀要』 16(1990).

26) 西口芳男, 앞의 글, 부록 참조. 『통요』를 비롯한 공안집이 남송에 이르러 다수 출현하면서 『종문척영집』이 지닌 역할과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선종계에서 傳本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椎名宏雄, 「解題」 『禪學典籍叢刊』 第6卷 上, 426쪽)

27) 永井政之, 「祖庭事苑の基礎的研究」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4(1973).

28) 조명제, 「一然의 선사상과 宋의 禪籍」 『보조사상』 33(2010), 202~20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한편, 고종 41년(1254)에 간행된 『禪苑淸規』는 崇寧 2년(1103)에 長蘆宗賾이 편찬한 것으로 선문 독자의 수행체계와 규범을 담고 있다.[30] 고려 불교계에서 『선원청규』가 간행되었다는 것은 선종이 당시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뚜렷하게 부각되었을 정도로 성장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문자선이 유행하면서 운문종의 다양한 선적이 간행되었으며, 그 사상적인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Ⅲ. 운문종 어록이 『선문염송집』 편찬에 미친 영향

고려 선종계에 운문종의 선적이 수용되었던 양상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역사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염송집』에는 운문종의 선적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선사가 운문종의 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다. 운문종의 선적인 『통요』와 설두 7부집이 『염송집』의 편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설두 7부집을 제외한 운문종의 어록이 『염송집』의 편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뒤의 <표>로 정리하였다.[31]

먼저, 전체 <표>를 통해 착어의 인용 횟수가 많은 순서는 법진수일(206), 남명법천(134), 지해본일(120), 대각회련(107), 자수회심(60), 운

29) 『증도가사실』에 설두의 어록은 권1 望南星 註(『한불전』 6책, 110쪽, 이하 같은 책의 페이지), 권1 文殊撞倒老維摩 조(120쪽), 권3 驪龍窟 주(158쪽) 등에, 『조정사원』은 권1 金剛 주(109쪽), 蒼蒼 주(118쪽), 권2 跋提 至鶴樹 주(125쪽), 拂石 주(129쪽), 碧眼 주(131쪽), 更着迦葉 주(132쪽), 善吉 주(138쪽), 권3 牓양 주(145쪽), 楊朱 주(153쪽), 金田 주(155쪽), 祇園 주(156쪽) 등에 인용되어 있다. 『증도가사실』에 대한 내용 분석과 문헌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30) 이 송판은 마멸되어 남송 嘉泰 2년(1202)에 再刻한 『重雕補註禪苑淸規』가 간행되었다. 현존 고판본은 대부분 이 판본이지만, 고려본은 그 저본이 북송 政和 원년(1111) 판본이며, 『선원청규』의 원형을 가장 잘 전하는 판본이다.

31) <표>는 『염송집』에 착어가 5회 이상 인용된 어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인용 횟수는 본칙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1칙에 송고, 염고 등이 복수 인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횟수 자체는 더 많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문문언(47), 장로종색(47), 원통법수(41), 천의의회(31), 오조사계(30), 불인요원(21), 개선선섬(20), 상방제악(18), 지문광조(17), 정자선본(16), 광령희조(13), 천장원초(10), 불일지재(8) 등의 순이다. 착어의 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설두중현의 착어이지만, 설두 이외에도 운문종의 법진수일, 남명법천, 대각회련 등의 인용 횟수는 대단히 많다.

또한 운문종의 법계에서 운문문언 - 향림징원 - 지문광조 - 설두중현 - 천의의회 - 혜림종본 - 법진수일로 이어지는 선승들의 착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양상은 설두중현이 공안 비평의 유행을 선도하였던 것이라든지 설두의 법계가 운문종을 주도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가운데 대각회련, 남명법천 등은 고려불교계와 관계가 있거나 다른 저술이 간행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의 착어가 많이 인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반해 설두와 함께 운문종을 대표하는 불일계숭의 저술은 『염송집』 98칙에 「眞諦無聖論」만 전문 그대로 인용될 뿐이다.[32] 이 글은 계숭의 대표적인 저술인 『輔敎篇』(1061년)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33]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新編諸宗敎藏總錄』 권3에 『輔敎篇』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계숭의 저술은 의천 당시에 고려에 소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송집』에 계숭의 영향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계숭의 저술에는 송고, 염고 등 공안 비평에 대한 글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다음으로 운문종 선승들의 착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1>에서 운문문언의 착어는 송고가 전혀 없고 代 7회, 別 2회가 인용된 것에 비해 염고가 47회나 인용되어 있어 염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표 2>에서 지문광조의 착어는 염고가 없고, 상당, 시중이 모두 2회인 것에 비해 송고가 15회나 인용되어 송고의 비중이 대단히 많다. <표 3>에서 오조사계의 착어는 송고가 전혀 없고, 代 3회, 別 1회에 불과하지만 염고가 23회 인용되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표 4>에서 상방제악의 착어는 염고가 7회, 上堂云 11회이며, 송고가 전혀 없다. <표 5>에서 개선선섬의 착어는 염고 2회, 上堂擧云 15회, 별 1회, 대 2회 등이다. <표 6>에서 불인요원의 착어는 상당 10회, 송고 11회 등이

32) 『염송집』 권3(『한불전』 5-101쪽).
33) 「大宋沙門契崇書」 『大覺國師外集』 권5(『한불전』 4-56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인용되어 있다.

<표 7>에서 천장원초의 착어는 송고 11회, 운 4회 등이다. <표 8>에서 지해본일의 착어는 송고 73회, 염고 3회, 상당운 41회, 운 2회, 대 2회 등이다. <표 9>에서 천의의회의 착어는 소참 2회, 상당 6회, 염고 3회, 상당운 5회, 송고 15회 등이다. <표 10>에서 원통법수의 착어는 운 18회, 염고 17회, 송고 7회 등이다. <표 11>에서 대각회련의 착어는 염고가 2회에 그치는 데에 비해 송고가 105회 인용되어 압도적으로 많다. <표 12>에서 불일지재의 착어는 상당운 4회, 송고 3회, 염고 2회 등이다. <표 13>에서 광령희조의 착어는 상당운 5회, 만참운 1회, 염고 3회, 송고 1회, 운 3회 등이다.

<표 14>에서 남명법천의 착어는 송고가 102회로 압도적으로 많고, 염고 20회, 상당운 6회, 소참운 2회, 대 6회, 별 2회, 시중운 1회 등의 순으로 인용되어 있다. <표 15>에서 장로종색의 착어는 상당운 11회, 소참 2회, 염고 14회, 운 15회, 송고 5회 등이다. <표 16>에서 법진수일의 착어는 송고가 122회로 가장 많으며, 운 30회, 염고 60회 대운 2회, 별 3회 등이다. <표 17>에서 정자선본의 착어는 상당운 5회, 소참 2회, 대운 4회, 운 2회, 별운 1회, 송고 2회 등이다. <표 18>에서 자수회심의 착어는 송고 35회, 상당운 21회, 소참 3회, 염고 1회 등이다.

이러한 인용을 통해 운문종의 착어는 대개 설두중현을 전후로 하여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설두 이전의 운문종에서는 염고의 비중이 높았지만, 설두 이후에는 송고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설두의 착어는 염고와 송고가 모두 중시되지만 『설두송고』가 더 중시되었다. 『염송집』에서도 설두의 송고는 『설두송고』 77칙을 제외하고 모두 인용되었고, 『염송집』의 착어 가운데 모두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을 만큼 매우 중시되었다. 그것은 설두의 송고가 공안 비평의 정수이자 송대 송고를 대표하는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34] 따라서 설두 이후의 운문종에서 송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던 경향이 운문종 선승들의 어록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그러한 흐름이 『염송집』의 편찬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

34) 趙明濟,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16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또한 『염송집』에 수록된 운문종의 착어는 기본적으로 문자선의 이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자선으로 귀결되기 이전의 운문선의 본질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다. 본래 운문문언의 선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었으며, 선의 심화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리야 요시타카는 운문의 선을 法身觀의 변천에 따라 초기는 이념적인 법신의 탐구, 중기는 법신의 육체화, 또는 신체로서의 법신의 능동화이며, 만기는 그 법신을 透出하여 더욱 초월하고자 하는 견지, 게다가 그것에 措定될지 모르는, 구극절대적인 것을 끊임없이 깨끗이 끊어버리고자 하는 지향이 있다고 한다.[35]

그러나 운문 이후의 선은 견해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주체의 확립이 소홀하게 되어 法身向上·自己向上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혁하면서 '向上'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운문선의 본질은 운문의 개성에 의한 것이 크고, 쉽게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더욱이 문하의 선승들은 안이하게 天然自在한 실상을 그대로 도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시와 문학과 결합되어 문자선의 세계로 흘러갔다.[36]

그리하여 운문에 관한 적지 않은 공안이 『雪竇頌古』에 수록되었고, 『碧巖錄』에서 제창되었다. 『벽암록』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공안이 운문의 것으로 전체 100칙 가운데 18칙이나 된다. 그런데 『벽암록』에서 운문선을 취급하는 방식은 본래의 운문선과 전혀 다르다. 거기에는 운문의 한 칙 한 칙이 각각 완결한 법의 세계로서 고정되었다. 운문 자신이 한 칙 한 칙의 그것을 차례로 극복하여갔고, 끊임없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초극하는 모습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염송집』에 수록된 운문종의 어록은 문자선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운문선 본래의 생생한 모습이나 본질과 다르다고 하겠다.

한편, 『염송집』에 수록된 송대 선적을 검토해보면 전체적으로 임제종의 착어가 가장 많지만, 북송 시기에는 운문종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송 이후 운문종이 쇠퇴하였고, 고려 선종계에서 간화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공안 비평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적어지면서 운문종

35) 入矢義高, 「雲門の禪·その<向上>ということ」 『增補自己と超越』, 86~87쪽.
36) 西口芳男, 「黃龍慧南の臨濟宗轉向と泐潭懷澄」, 240~24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의 선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사의 흐름에 따라 현전하는 운문종의 문헌이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염송집』을 통해 12~13세기 고려 불교계에서 운문종의 사상적 영향이 적지 않았던 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염송집』에 수록된 운문종 선승들의 착어는 북송대 선종사의 복원을 위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법진수일, 남명법천, 지해본일, 대각회련, 원통법수, 천의의회, 오조사계, 불인요원, 개선선섬, 상방제악, 정자선본, 광령희조, 천장원초, 불일지재 등의 어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염송집』에 수록된 이들의 착어는 모두 逸書 자료로서 북송대 운문종의 어록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송대 선종사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운문종의 선승들과 교유하였던 사대부의 착어도 주목된다. 운문종과 관련된 사대부로는 불인요원에게 사사하였던 蘇軾, 蘇轍 형제, 혜림종본에게 사사한 富弼(1004~1083), 천의의회의 법맥을 이은 楊傑, 남명법천에게 배웠던 趙抃[37]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표 19>에서 조변의 착어는 『염송집』에 모두 66칙에 인용될 만큼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조변의 착어는 대부분 송고이므로 당시 운문종 선승들이 송고를 중시한 것과 마찬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선사가 『염송집』을 편찬하면서 운문종의 어록을 적지 않게 수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문자선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선사가 간화선을 수용하면서도 문자선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던 것은 설두중현의 착어가 수록된 『禪門三家拈頌集』을 1246년에 간행하였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38] 이와 같이 『염송집』의 편찬 수준이나 공안집의 수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선사 단계에서 간화선의 수용과 이해 문제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39]

---

37) 조변은 衢州 西安 출신으로 武安軍節度推官, 殿中侍御史 등을 거쳐 神宗 대에 參知政事를 지냈다. 시호가 淸獻이며, 자호가 知非子이다. 그의 문집으로 趙淸獻集이 있으며, 拈頌 백편으로 이루어진 『拈古頌』이 있었으나 현전하지 않는다.(『宋史』 316/7, 「拈古頌序」 『丹淵集』 25/1)

38)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167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표 1〉『염송집』에 인용된 雲門文偃의 착어 일람표[40]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2 (世尊)	拈古	『統要』	본칙에 인용
2	3 (世尊)	云	『雲』上(X68-97c)	
3	56 (金剛經)	擧云	『雲』中(X68-105a)	
4	68 (須菩提)	拈古	『雲』中(X68-106a)	
5	80 (迦葉)	擧云	『雲』中(X68-101c)	
6	94(摩拏羅尊者)	云	『雲』中(X68-105b)	
7	106 (三祖僧璨)	擧云	『雲』下(X68-111a)	
8	131 (慧忠國師)	云	『雲』中(X68-104a)	본칙에 인용
9	141 (慧忠國師)	云	『雲』中(X68-102c～103a)	
10	142 (慧忠國師)	拈古	『雲』中(X68-101c)	『統要』
11	206 (南泉普願)	拈古	『雲』中(X68-105b)	『統要』
12	215 (南泉普願)	代云 代云	『雲』中(X68-106b) 『統要』	『統要』
13	223 (南泉普願)	拈古	『雲』中(X68-105a)	『統要』
14	250 (盤山寶積)	擧云 擧云 云	『雲』中(X68-102a) 『雲』中(X68-101a) 『雲』中(X68-101ab)	
15	429 (趙州從諗)	拈古	『雲』中(X68-100c)	『統要』
16	503 (茱萸)	拈古	『雲』中(X68-103a)	『統要』
17	511 (遂州良遂)	云	『雲』中(X68-103bc)	『統要』
18	524 (雲巖曇晟)	云	『雲』中(X68-106c)	『統要』
19	559 (石霜慶諸)	代	『雲』中(X68-103c)	
20	562 (石霜慶諸)	代云	『雲』中(X68-103c)	『統要』
21	568 (仰山惠寂)	云	『雲』中(X68-100b)	본칙 인용
22	578 (仰山惠寂)	云	『雲』中(X68-101b)	『統要』, 『燃燈』 단독
23	594 (靈雲志勤)	擧云	『雲』中(X68-102c)	
24	676 (德山宣鑒)	拈古	『統要』 887b6	『大藏一覽』
25	688 (洞山良价)	拈古	『雲』中(X68-104a)	
26	712 (夾山善會)	拈古	『雲』中(X68-103a)	

39) 이러한 문제는 『염송집』에 가장 많은 착어가 수록된 大慧宗杲의 경우도 간화선보다 문자선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그의 착어가 『염송집』에 수록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대혜의 저작이 『염송집』에 어떻게 수록되고 사상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밝힐 예정이다.

40) 모든 표에서 新撰大日本續藏經은 X로, 『禪宗頌古聯珠集』은 『聯』로, 『宗門燃燈會要』는 『燃燈』으로, 『古尊宿語錄』은 『古』로 표기하였다. 또한 비고에서 '단독'이라 쓴 것은 착어가 단 하나만 수록된 경우를 가리킨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27	716 (夾山善會)	拈古 擧云	『雲』中(X68-102a) 『雲』中(X68-101b)	
28	764 (灌溪志閑)	拈古	『雲』中(X68-104a)	
29	786 (雪峯義存)	擧云	『雲』中(X68-106c)	
30	800 (雪峯義存)	擧云 擧云	『雲』中(X68-101a) 『雲』中(X68-101b)	『燃燈』 『統要』
31	823 (雪峯義存)	別, 代語	『雲』中(X68-106b)	『統要』
32	825 (雪峯義存)	拈古	『雲』中(X68-102c)	
33	847 (大隨法眞)	別	『雲』中(X68-105c)	『統要』
34	867 (雲居道膺)	云	『雲』中(X68-107a)	『統要』
35	907 (龍牙居遁)	擧云 云	『雲』中(X68-105b) 『雲』中(X68-105b)	
36	960 (韶山寰普)	代云	『雲』中(X68-106b)	『統要』, 代語3회
37	983 (玄沙師備)	拈古	『雲』中(X68-102c)	
38	985 (玄沙師備)	擧云	『雲』中(X68-105c~106a)	『統要』
39	1005(玄沙師備)	拈古	『雲』中(X68-105b)	『統要』
40	1105(長慶慧稜)	拈古		
41	1129(翠巖令參)	代云	『雲』中(X68-106c)	『正法』
42	1195(資福如寶)	云	『雲』中(X68-100c)	『統要』, 단독
43	1196(資福如寶)	擧云	『雲』中(X68-103a)	단독
44	1218(王延彬)	云	『雲』中(X68-107a)	『統要』
45	1249(風穴延昭)	拈古	『統要』	
46	1424(生法師)	云	『雲』中(X68-103c)	
47	1429(傅大士)	擧云	『雲』中(X68-101c)	

〈표 2〉『염송집』에 인용된 智門光祚의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6 (世尊)	頌古	『智』 13쪽(『古』 222b)	
2	130 (慧忠國師)	上堂	『智』 5쪽(『古』 218bc)	
3	206 (南泉普願)	示衆擧云	『智』 9쪽(『古』 220a)	
4	213 (南泉普願)	頌古	『智』 15쪽(『古』 223b)	
5	284 (汾州無業)	頌古	『智』 13쪽(『古』 222b)	
6	438 (趙州從諗)	頌古	『智』 15쪽(『古』 223b)	
7	756 (興化存獎)	頌古	『智』 16쪽(『古』 223c)	
8	789 (雪峯義存)	頌古	『智』 13쪽(『古』 222b)	
9	793 (雪峯義存)	頌古	『智』 14쪽(『古』 222c)	
10	846 (大隨法眞)	頌古	『智』 14쪽(『古』 222d)	『聯』
11	848 (大隨法眞)	頌古	『智』 15쪽(『古』 223a)	『聯』
12	1023(雲門文偃)	頌古	『智』 14쪽(『古』 222cd)	『聯』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13	1073(雲門文偃)	頌古	『智』 14쪽(『古』 222c)	『聯』
14	1081(雲門文偃)	頌古	『智』 14쪽(『古』 222d)	『聯』
15	1110(長慶慧稜)	頌古	『智』 16쪽(『古』 223d)	
16	1116(長慶慧稜)	頌古	『智』 16쪽(『古』 223d)	
17	1230(洞山守初)	頌古	『智』 15쪽(『古』 223a)	『聯』

〈표 3〉『염송집』에 인용된 五祖師戒의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13 (世尊)	拈古	『統要』	16	508 (五臺秘魔嵓)	運	『統要』
2	16 (世尊)	拈古	『統要』	17	558 (石霜慶諸)	代	『統要』
3	76 (賓頭盧尊者)	云	『統要』	18	573 (仰山惠寂)	云	『統要』
4	81 (迦葉)	云	『統要』	19	662 (徑山道欽)	云	
5	110 (六祖慧能)	拈古	『統要』	20	666 (德山宣鑒)	拈古	『統要』
6	203 (南泉普願)	云		21	695 (洞山良价)	云	『統要』
7	214 (南泉普願)	拈古	『統要』	22	766 (定州善崔)	別云	『統要』
8	224 (南泉普願)	代	『統要』	23	847 (大隨法眞)	拈古	『統要』
9	228 (南泉普願)	云	『統要』	24	894 (龍牙居遁)	拈古	『統要』
10	245 (南泉普願)	云	『統要』	25	987 (玄沙師備)	云	『統要』
11	325 (藥山惟儼)	拈古	『統要』	26	1118(鏡淸道怤)	拈古	『統要』
12	389 (黃蘗希運)	云	『統要』	27	1164(鎭州2世保壽)	云	
13	390 (黃蘗希運)	代	『統要』	28	1181(禾山澄遠)	拈古	
14	439 (趙州從諗)	拈古		29	1366(興福可勳)	擧云	
15	486 (趙州從諗)	拈古	『統要』	30	1434(南嶽慧思)	拈古	『統要』

〈표 4〉『염송집』에 인용된 上方齊岳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1	94 (摩拏羅尊者)	上堂擧云	10	716 (夾山善會)	擧云
2	100 (達磨)	上堂云	11	788 (雪峯義存)	上堂擧云
3	146 (慧忠國師)	拈古	12	795 (雪峯義存)	拈古
4	151 (淸源行思)	拈古	13	849 (大隨法眞)	上堂擧云
5	203 (南泉普願)	擧云	14	917 (越州乾峯)	拈古
6	205 (南泉普願)	上堂擧云	15	919 (越州乾峯)	上堂擧云
7	281 (金牛和尙)	拈古	16	1207(羅漢桂琛)	拈古
8	640 (睦州道蹤)	擧云	17	1229(洞山守初)	擧云
9	666 (德山宣鑒)	拈古	18	1290(法眼文益)	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표 5〉『염송집』에 인용된 開先先暹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1	123 (永嘉玄覺)	上堂擧云		11	981 (玄沙師備)	拈古
2	167 (馬祖道一)	擧云	단독	12	1007 (雲門文偃)	拈古
3	199 (鹽官齊安)	擧代云		13	1022 (雲門文偃)	上堂擧云
4	407 (趙州從諗)	上堂擧云		14	1035 (雲門文偃)	上堂擧云
5	444 (趙州從諗)	別云		15	1048 (雲門文偃)	上堂擧云
6	508(五臺秘魔嵓)	代云		16	1049 (雲門文偃)	上堂擧云
7	648 (睦州道蹤)	上堂擧云	단독	17	1247 (風穴延昭)	上堂擧云
8	787 (雪峯義存)	上堂擧云		18	1272 (明招德謙)	上堂擧云
9	867 (雲居道膺)	擧云		19	1298 (法眼文益)	上堂擧云
10	973 (保福從展)	上堂擧云		20	1304 (法眼文益)	擧云

〈표 6〉『염송집』에 인용된 佛印了元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1	5 (世尊)	頌古		12	568 (仰山惠寂)	上堂擧云
2	62 (維摩)	頌古		13	668 (德山宣鑒)	上堂擧云
3	81 (迦葉)	頌古		14	758 (興化存獎)	上堂擧云
4	92 (迦耶舍多)	頌古		15	782 (雪峯義存)	上堂擧云
5	98 (達磨)	頌古		16	898 (龍牙居遁)	頌古
6	100 (達磨)	頌古		17	918 (越州乾峯)	頌古
7	105 (二祖慧可)	頌古		18	985 (玄沙師備)	上堂擧云
8	108 (四祖道信)	頌古		19	1019(雲門文偃)	上堂擧云
9	119 (南嶽懷讓)	頌古	『聯』	20	1164(鎭州2世保壽)	上堂擧云
10	412 (趙州從諗)	上堂擧云		21	1429 (傅大士)	上堂擧云
11	492 (長沙景岑)	擧云				

〈표 7〉『염송집』에 인용된 天章元楚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1	148 (淸源行思)	頌古 頌古	6	617 (臨濟義玄)	上堂擧云
2	401 (大慈寰中)	上堂擧云	7	793 (雪峯義存)	頌古
3	408 (趙州從諗)	頌古 頌古	8	917 (越州乾峯)	上堂擧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4	421 (趙州從諗)	頌古 頌古 頌古	9	1009(雲門文偃)	上堂擧云
5	590 (靈雲志勤)	頌古 頌古	10	1035(雲門文偃)	頌古

〈표 8〉『염송집』에 인용된 智海本逸의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2 (世尊)	上堂云		62	637(睦州道蹤)	上堂云	
2	5 (世尊)	頌古 上堂云		63	670 (德山宣鑒)	上堂云	
3	6 (世尊)	頌古		64	677 (德山宣鑒)	上堂云	
4	13 (世尊)	頌古		65	686 (洞山良价)	上堂云	
5	14 (世尊)	頌古		66	687 (洞山良价)	上堂云	
6	16 (世尊)	上堂云		67	697 (洞山良价)	頌古	
7	40 (法華經)	上堂云		68	704 (洞山良价)	頌古	
8	51 (楞嚴經)	上堂云		69	742 (投子大同)	頌古	
9	60(諸佛要集經)	上堂云		70	785 (雪峯義存)	上堂云	
10	62 (維摩)	頌古		71	788 (雪峯義存)	上堂云	
11	65 (文殊)	頌古		72	789 (雪峯義存)	頌古	『聯』
12	81 (迦葉)	頌古		73	794 (雪峯義存)	頌古	『聯』
13	94 (摩拏羅)	上堂云		74	795 (雪峯義存)	頌古	
14	97 (般若多羅)	上堂云		75	814 (雪峯義存)	上堂云	
15	98 (達磨)	頌古		76	846 (大隨法眞)	頌古	『聯』
16	100 (達磨)	頌古		77	848 (大隨法眞)	頌古	
17	101 (達磨)	頌古		78	855 (雲居道膺)	頌古	
18	113 (六祖慧能)	頌古		79	918 (越州乾峯)	上堂云	
19	123 (永嘉玄覺)	上堂云		80	928 (佛巖暉)	頌古	
20	130 (慧忠國師)	拈古		81	1011 (雲門文偃)	頌古	
21	148 (淸源行思)	頌古		82	1014 (雲門文偃)	上堂云	
22	162 (馬祖道一)	拈古		83	1018 (雲門文偃)	頌古	『聯』
23	166 (馬祖道一)	頌古		84	1019 (雲門文偃)	頌古	『聯』
24	169 (馬祖道一)	上堂云 上堂云		85	1020 (雲門文偃)	頌古	『聯』
25	178 (百丈懷海)	上堂云		86	1022 (雲門文偃)	頌古	『聯』
26	181 (百丈懷海)	頌古		87	1023 (雲門文偃)	頌古	
27	182 (百丈懷海)	頌古		88	1024 (雲門文偃)	頌古	『聯』
28	184 (百丈懷海)	頌古		89	1037 (雲門文偃)	頌古	『聯』
29	208 (南泉普願)	上堂云		90	1047 (雲門文偃)	上堂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30	212 (南泉普願)	頌古	『聯』	91	1048 (雲門文偃)	上堂云	
31	256 (歸宗智常)	拈古		92	1056 (雲門文偃)	頌古	
32	278 (石鞏慧藏)	頌古		93	1061 (雲門文偃)	頌古 上堂云	
33	280 (中邑洪恩)	頌古		94	1083 (雲門文偃)	上堂云	
34	292 (南園曇晟)	頌古		95	1105 (長慶慧稜)	上堂云	
35	325 (藥山惟儼)	云		96	1118 (鏡淸道怤)	頌古	『聯』
36	396 (黃蘗希運)	頌古		97	1171 (雲居道膺)	頌古	
37	408 (趙州從諗)	上堂云		98	1172 (雲居道膺)	頌古	
38	410 (趙州從諗)	頌古		99	1181 (澄源無殷)	頌古	
39	411 (趙州從諗)	頌古	『聯』	100	1186 (護國守澄)	頌古	
40	412 (趙州從諗)	頌古		101	1192 (芭蕉慧清)	頌古	
41	414 (趙州從諗)	頌古		102	1224 (香林澄遠)	頌古	『聯』
42	415 (趙州從諗)	頌古		103	1230 (洞山守初)	頌古	
43	417 (趙州從諗)	頌古		104	1251 (風穴延昭)	頌古	『聯』
44	421 (趙州從諗)	頌古		105	1290 (法眼文益)	頌古	『聯』
45	429 (趙州從諗)	頌古	『聯』	106	1293 (法眼文益)	頌古	『聯』
46	430 (趙州從諗)	上堂云		107	1295 (法眼文益)	上堂云 上堂云	
47	431 (趙州從諗)	上堂云		108	1314 (淸溪洪進)	頌古	
48	434 (趙州從諗)	頌古		109	1321 (首山省念)	頌古	『聯』
49	441 (趙州從諗)	頌古		110	1335 (汾陽善昭)	頌古	『聯』
50	478 (趙州從諗)	頌古		111	1336 (汾陽善昭)	上堂云	
51	479 (趙州從諗)	頌古		112	1386 (石霜楚圓)	頌古	『聯』
52	499 (子湖利蹤)	頌古	『聯』	113	1429 (傅大士)	上堂云	
53	502 (子湖利蹤)	上堂云		114	1430 (傅大士)	頌古	『聯』
54	511 (遂州良遂)	頌古	『聯』	115	1431 (傅大士)	上堂云	
55	521 (雲巖曇晟)	頌古		116	1433 (杜順和尙)	上堂云	
56	590 (靈雲志勤)	頌古	『聯』	117	1436 (文殊)	頌古	
57	598 (香嚴智閑)	上堂云 云		118	1437 (文殊)	頌古	
58	599 (香嚴智閑)	頌古		119	1450 (老宿)	頌古	
59	600 (香嚴智閑)	上堂云		120	1459 (大宋皇帝)	代	
60	615 (臨濟義玄)	上堂云		121	1460 (大宋皇帝)	代	
61	619 (臨濟義玄)	頌古					

〈표 9〉『염송집』에 인용된 天衣義懷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1 (世尊)	上堂云		17	418 (趙州從諗)	頌古	『聯』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2	13 (世尊)	上堂云		18	421 (趙州從諗)	頌古	『聯』
3	16 (世尊)	頌古		19	430 (趙州從諗)	上堂	
4	21 (世尊)	頌古		20	785 (雪峯義存)	拈古	
5	23 (世尊)	上堂云		21	793 (雪峯義存)	頌古	
6	31 (世尊)	小參		22	857 (雲居道膺)	云	
7	32 (世尊)	頌古	『聯』	23	979 (玄沙師備)	上堂	
8	55 (金剛經)	上堂云	『天衣語要』(X68-376b)	24	991 (玄沙師備)	頌古	『聯』
9	101 (達磨)	頌古	『聯』	25	1016 (雲門文偃)	頌古	『聯』
10	110 (六祖慧能)	頌古		26	1048 (雲門文偃)	頌古	
11	115 (六祖慧能)	上堂云		27	1065 (雲門文偃)	上堂	
12	155 (崇山峻極)	小參		28	1290 (法眼文益)	頌古	『聯』
13	184 (百丈懷海)	上堂		29	1310 (修山主)	上堂	『天衣語要』(X68-375c)『統要』
14	335 (藥山惟儼)	云		30	1361 (報慈玄覺)	頌古	
15	357 (潙山靈祐)	上堂		31	1398 (黃龍慧南)	頌古	
16	375 (潙山靈祐)	頌古					

〈표 10〉『염송집』에 인용된 圓通法秀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55 (金剛經)	擧云		22	746 (淸平令遵)	上堂擧云	송고
2	65 (文殊)	拈古		23	798 (雪峯義存)	拈古	
3	101 (達磨)	頌古	『聯』	24	802 (雪峯義存)	擧云	
4	110 (六祖慧能)	頌古	『聯』	25	808 (雪峯義存)	拈古	단독
5	125 (永嘉玄覺)	上堂擧云		26	815 (雪峯義存)	拈古	단독
6	130 (慧忠國師)	頌古	『聯』	27	846 (大隨法眞)	頌古 頌古	『聯』
7	161 (馬祖道一)	拈古		28	906 (龍牙居遁)	擧云	단독
8	200 (鹽官齊安)	上堂擧云		29	977 (越州鑑眞)	云	
9	227 (南泉普願)	拈古		30	1052(雲門文偃)	拈古	
10	249 (盤山寶積)	擧云		31	1062(雲門文偃)	擧云	
11	311 (龐居士)	上堂擧云		32	1079(雲門文偃)	拈古	
12	321 (丹霞天然)	拈古		33	1097(雲門文偃)	擧云	
13	351 (天皇道吾)	拈古		34	1119(鏡淸道怤)	擧云	
14	381 (潙山靈祐)	擧云		35	1200(羅山道閑)	拈古	
15	387 (潙山靈祐)	拈古	단독	36	1295(法眼文益)	擧云	『燃燈』
16	417 (趙州從諗)	頌古	『聯』	37	1303(法眼文益)	拈古	
17	450 (趙州從諗)	擧云		38	1312 (修山主)	拈古	단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18	502 (子湖利蹤)	擧云		39	1313 (修山主)	拈古	
19	503 (茱萸和尙)	拈古	『統要』	40	1357(雪竇重顯)	擧云	단독
20	539 (翠微無學)	拈古	단독	41	1390(大愚守芝)	頌古	
21	558 (石霜慶諸)	云	『統要』				

〈표 11〉『염송집』에 인용된 大覺懷璉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9 (世尊)	頌古		55	649 (睦州道蹤)	拈古	
2	11 (世尊)	頌古		56	662 (徑山道欽)	頌古	
3	12 (世尊)	頌古	단독	57	666 (德山宣鑒)	頌古	
4	14 (世尊)	頌古		58	668 (德山宣鑒)	頌古	
5	16 (世尊)	頌古		59	669 (德山宣鑒)	頌古	단독
6	20 (世尊)	頌古		60	671 (德山宣鑒)	頌古	
7	26 (世尊)	頌古		61	673 (德山宣鑒)	頌古	단독
8	65 (文殊)	頌古		62	675 (德山宣鑒)	頌古	단독
9	68 (須菩提)	頌古		63	677 (德山宣鑒)	頌古	
10	81 (迦葉)	頌古		64	747 (鳥窠道林)	頌古	
11	82 (迦葉)	頌古	단독	65	749 (鎭州保壽)	頌古	
12	129 (慧忠國師)	頌古		66	753 (魏府大覺)	頌古	
13	131 (慧忠國師)	頌古		67	766 (定州善崔)	頌古	
14	134 (慧忠國師)	頌古		68	768 (定上座)	頌古	
15	152 (荷澤神會)	頌古		69	776 (覆盆庵主)	頌古	단독
16	153 (破竈墮)	頌古		70	785 (雪峯義存)	頌古	
17	169 (馬祖)	頌古		71	789 (雪峯義存)	頌古	
18	178 (百丈懷海)	頌古		72	797 (雪峯義存)	頌古	
19	181 (百丈懷海)	頌古		73	798 (雪峯義存)	頌古	
20	182 (百丈懷海)	頌古		74	799 (雪峯義存)	頌古	
21	196 (麻谷寶徹)	頌古	단독	75	814 (雪峯義存)	頌古	
22	199 (鹽官齊安)	頌古		76	817 (雪峯義存)	頌古	단독
23	202 (鹽官齊安)	頌古		77	826 (巖頭全豁)	頌古	
24	204 (南泉普願)	頌古		78	842 (高亭簡)	頌古	
25	207 (南泉普願)	頌古		79	846 (大隨法眞)	頌古	
26	208 (南泉普願)	頌古		80	847 (大隨法眞)	頌古	
27	226 (南泉普願)	頌古		81	850 (大隨法眞)	頌古	
28	236 (南泉普願)	頌古	단독	82	894 (龍牙居遁)	頌古	
29	238 (南泉普願)	頌古		83	896 (龍牙居遁)	頌古	
30	256 (歸宗智常)	頌古		84	907 (龍牙居遁)	頌古	
31	263 (歸宗智常)	頌古	단독	85	917 (越州乾峯)	頌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32	302 (華林善覺)	頌古		86	1042(雲門文偃)	頌古	
33	368 (潙山靈祐)	頌古		87	1076(雲門文偃)	拈古	단독
34	389 (黃蘗希運)	頌古		88	1077(雲門文偃)	頌古	
35	391 (黃蘗希運)	頌古		89	1118(鏡淸道怤)	頌古	
36	404 (古靈神贊)	頌古		90	1147(金峯從志)	頌古	단독
37	410 (趙州從諗)	頌古		91	1164(鎭州2世寶壽)	頌古	
38	411 (趙州從諗)	頌古		92	1165(西院思明)	頌古	
39	424 (趙州從諗)	頌古		93	1181(澄源無殷)	頌古	
40	451 (趙州從諗)	頌古	단독	94	1188(石門獻蘊)	頌古	
41	476 (趙州從諗)	頌古		95	1201(羅山道閑)	頌古	
42	508(五臺秘魔嵓)	頌古		96	1203(木平善道)	頌古	
43	512 (鎭州普化)	頌古		97	1272(明招德謙)	頌古	
44	514 (鎭州普化)	頌古		98	1291(法眼文益)	頌古	
45	557 (石霜慶諸)	頌古		99	1305 (修山主)	頌古	단독
46	571 (仰山惠寂)	頌古		100	1321(首山省念)	頌古	
47	572 (仰山惠寂)	頌古		101	1332(首山省念)	頌古	
48	580 (仰山惠寂)	頌古		102	1436 (文殊)	頌古	
49	584 (仰山惠寂)	頌古	단독	103	1437 (文殊)	頌古	
50	599 (香嚴智閑)	擧云		104	1438 (無着)	頌古	단독
51	608 (臨濟義玄)	頌古		105	1440(佛陁波利)	頌古	
52	610 (臨濟)	頌古		106	1443 (寒山)	頌古	
53	617 (臨濟)	頌古		107	1444(天台拾得)	頌古	단독
54	618 (臨濟)	頌古					

〈표 12〉『염송집』에 인용된 佛日智才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1	199 (鹽官齊安)	上堂擧云	5	499 (子湖利蹤)	上堂擧云
2	219 (南泉普願)	拈古	6	614 (臨濟)	上堂擧云
3	410 (趙州從諗)	頌古	7	620 (臨濟)	拈古
4	420 (趙州從諗)	頌古	8	1013 (雲門文偃)	頌古

〈표 13〉『염송집』에 인용된 廣靈希祖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1	69 (須菩提)	上堂擧云	8	505 (池州甘贄)	上堂擧云
2	100 (達磨)	上堂擧云	9	901 (龍牙居遁)	擧云
3	149 (淸源行思)	晩參擧云	10	977 (越州鑑眞)	擧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4	205 (南泉普願)	拈古	11	1048 (雲門文偃)	頌古
5	339 (藥山惟儼)	拈古	12	1194 (資福如寶)	拈古
6	344 (藥山惟儼)	擧云	13	1443 (寒山子)	上堂擧云
7	417 (趙州從諗)	上堂擧云			

〈표 14〉『염송집』에 인용된 南明法泉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5 (世尊)	頌古		68	615 (臨濟義玄)	拈古	
2	14 (世尊)	頌古		69	622 (臨濟義玄)	頌古	
3	18 (世尊)	頌古	『聯』	70	635 (臨濟義玄)	頌古	『聯』
4	20 (世尊)	拈古		71	640(睦州道蹤)	頌古	
5	24 (世尊)	拈古		72	651(睦州道蹤)	頌古	
6	32 (世尊)	頌古	『聯』	73	670 (德山宣鑒)	頌古	
7	55 (金剛經)	頌古		74	684 (洞山良价)	拈古	
8	71 (舍利佛)	頌古	『聯』	75	687 (洞山良价)	頌古	『聯』
9	76(賓頭盧尊者)	頌古	『聯』	76	704 (洞山良价)	頌古	
10	98 (達磨)	拈古		77	715 (夾山善會)	上堂擧云	
11	100 (達磨)	拈古		78	729 (投子大同)	頌古	『聯』
12	101 (達磨)	頌古		79	745 (淸平令遵)	頌古	
13	110 (六祖慧能)	小參擧云		80	764 (灌溪志閑)	頌古	
14	122 (永嘉玄覺)	上堂擧云		81	796 (雪峯義存)	頌古	
15	129 (慧忠國師)	頌古		82	805 (雪峯義存)	拈古	
16	130 (慧忠國師)	頌古	『聯』	83	809 (雪峯義存)	拈古	
17	164 (馬祖道一)	拈古		84	813 (雪峯義存)	頌古	
18	169 (馬祖道一)	頌古	『聯』	85	837 (巖頭全豁)	頌古	
19	181 (百丈懷海)	頌古	『聯』	86	842 (高亭簡)	上堂擧云	
20	183 (百丈懷海)	頌古		87	843 (陳操尙書)	頌古	
21	189 (魯祖寶雲)	代		88	846 (大隨法眞)	頌古	『聯』
22	192 (三角總印)	拈古		89	847 (大隨法眞)	頌古	
23	203 (南泉普願)	頌古	『聯』	90	848 (大隨法眞)	頌古	『聯』
24	206 (南泉普願)	頌古		91	850 (大隨法眞)	頌古	
25	209 (南泉普願)	頌古		92	856 (雲居道膺)	頌古	『聯』
26	211 (南泉普願)	頌古	『聯』	93	911 (白水本仁)	拈古	
27	213 (南泉普願)	頌古		94	924 (大禪佛)	頌古	
28	215 (南泉普願)	頌古		95	932 (九峯道虔)	頌古	『聯』
29	221 (南泉普願)	代云		96	940 (湧泉景欣)	代	
30	225 (南泉普願)	代	細註	97	960 (韶山寰普)	代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31	229 (南泉普願)	頌古		98	982 (玄沙師備)	拈古	
32	246 (南泉普願)	頌古	『聯』	99	984 (玄沙師備)	頌古	『聯』
33	261 (歸宗智常)	頌古		100	992 (玄沙師備)	頌古	『聯』
34	273 (洪州水潦)	拈古		101	1013 (雲門文偃)	頌古	『聯』
35	278 (石鞏慧藏)	頌古		102	1018 (雲門文偃)	頌古	
36	290 (西堂智藏)	頌古		103	1034 (雲門文偃)	頌古	『聯』
37	299 (興善惟寬)	頌古		104	1035 (雲門文偃)	頌古 上堂云	『聯』
38	324 (藥山惟儼)	上堂擧云		105	1060 (雲門文偃)	頌古	
39	327 (藥山惟儼)	頌古		106	1071 (雲門文偃)	頌古	
40	347 (長髭曠)	拈古		107	1072 (雲門文偃)	頌古	
41	357 (溈山靈祐)	頌古		108	1073 (雲門文偃)	頌古	『聯』
42	371 (溈山靈祐)	頌古	『聯』	109	1077 (雲門文偃)	拈古	
43	383 (溈山靈祐)	拈古		110	1105 (長慶慧稜)	頌古	
44	390 (黃檗希運)	頌古	『聯』	111	1117 (長慶慧稜)	頌古	
45	408 (趙州從諗)	頌古		112	1123 (鏡淸道怤)	頌古	
46	409 (趙州從諗)	頌古	『聯』	113	1133 (孚上座)	頌古	『聯』
47	411 (趙州從諗)	頌古 小參擧云	『聯』	114	1145 (金峯從志)	頌古	
48	412 (趙州從諗)	頌古	『聯』	115	1186 (護國守澄)	頌古	
49	424 (趙州從諗)	拈古		116	1192 (芭蕉慧情)	拈古	
50	426 (趙州從諗)	頌古		117	1223 (巴陵顥鑑)	頌古	
51	429 (趙州從諗)	頌古		118	1230 (洞山守初)	頌古	『聯』
52	430 (趙州從諗)	頌古	『聯』	119	1240 (智門師寬)	頌古	
53	441 (趙州從諗)	頌古		120	1243 (智門師寬)	頌古	
54	476 (趙州從諗)	頌古		121	1272 (明招德謙)	頌古	『聯』
55	479 (趙州從諗)	頌古	『聯』	122	1290 (法眼文益)	頌古	『聯』
56	487 (趙州從諗)	代		123	1293 (法眼文益)	頌古	『聯』
57	488 (長沙景岑)	頌古		124	1303 (法眼文益)	拈古	
58	521 (雲巖曇晟)	頌古		125	1321 (首山省念)	頌古	『聯』
59	555 (石霜慶諸)	拈古		126	1335 (汾陽善昭)	頌古	『聯』
60	558 (石霜慶諸)	頌古	『聯』	127	1341 (葉縣歸省)	頌古	
61	571 (仰山惠寂)	頌古		128	1352 (雪竇重顯)	頌古	
62	585 (仰山惠寂)	頌古		129	1367 (洞山曉聰)	頌古	
63	590 (靈雲志勤)	頌古	『聯』	130	1384 (石霜楚圓)	頌古	
64	592 (靈雲志勤)	頌古	『聯』	131	1390 (大愚守芝)	頌古	『聯』
65	595 (靈雲志勤)	頌古		132	1443 (寒山子)	別	
66	598 (香嚴智閑)	示衆擧云		133	1447 (布袋)	頌古	『聯』
67	600 (香嚴智閑)	頌古	『聯』	134	1449 (布袋)	上堂擧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표 15〉『염송집』에 인용된 長蘆宗賾의 착어 일람표[41]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6 (世尊)	拈古	『洪濟』 1(『慈』上)	
2	13 (世尊)	拈古	『擧古』 4(『慈』中)	
3	14 (世尊)	上堂擧云	『擧古』 3(『慈』中)	
4	18 (世尊)	上堂擧云	『慈』上, 26	
5	33 (世尊)	擧云	『擧古』 1(『慈』中)	
6	55 (金剛經)	擧云	『洪濟』 22(『慈』上)	
7	81 (迦葉)	擧云	『擧古』 2(『慈』中)	
8	97 (般若多羅)	上堂擧云	『慈』下, 48	
9	101 (達磨)	上堂	『慈』中, 97	
10	106 (三祖)	云	『洪濟』 40(『慈』上)	
11	110 (六祖慧能)	頌古	『洪濟』 16(『慈』上)	圓通禪師頌 생략
12	111 (六祖慧能)	云	『擧古』 48(『慈』中)	
13	151 (淸源行思)	拈古	『擧古』 26(『慈』中)	
14	178 (百丈懷海)	頌古		
15	181 (百丈懷海)	云	『擧古』 18(『慈』中)	
16	205 (南泉普願)	上堂	『洪濟』 83(『慈』上)	본칙 중복 생략
17	248 (盤山寶積)	拈古	『擧古』 9(『慈』中)	
18	281 (金牛和尙)	上堂	『洪濟』 58(『慈』上)	
19	283 (金牛和尙)	云	『擧古』 12(『慈』中)	
20	319 (龐居士)	上堂云	『慈』下, 59	
21	321 (丹霞天然)	小參	『慈』上, 21	
22	325 (藥山惟儼)	拈古	『慈』下, 22	
23	328 (藥山惟儼)	云	『擧古』 27(『慈』中)	
24	412 (趙州從諗)	頌古		
25	494 (長沙景岑)	云	『擧古』 36(『慈』中)	
26	559 (石霜慶諸)	上堂	『慈』中, 194	
27	567 (仰山惠寂)	頌古		
28	571 (仰山惠寂)	拈古	『擧古』 6(『慈』中)	
29	590 (靈雲志勤)	上堂云	『慈』下, 75	
30	711 (夾山善會)	上堂云	『洪濟』 43(『慈』上)	
31	751 (三聖慧然)	拈古	『擧古』 20(『慈』中)	

41) 종색의 어록은 시이나 코유 선생이 고마자와대학 도서관 江田文庫에 소장된 필사본을 소개한 椎名宏雄, 「『慈覺禪師語錄』(飜刻)」 『駒澤大學禪硏究所年譜』 20(2008)을 이용하였다. 표에서 숫자는 시이나의 번각본에서 상당 등이나 擧古의 각 칙에 편의상 붙인 것이며, 卷上에 수록된 『洪濟禪院語錄』은 『洪濟』로 줄여 표시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32	785 (雪峯義存)	拈古	『擧古』 16(『慈』中)	
33	801 (雪峯義存)	擧云	『擧古』 8(『慈』中)	
34	802 (雪峯義存)	拈古	『擧古』 11(『慈』中)	
35	853 (靈樹如敏)	小參云	『洪濟』 13(『慈』上)	
36	863 (雲居道膺)	拈古	『擧古』 21(『慈』中)	
37	899 (龍牙居遁)	拈古	『慈』下, 10	
38	979 (玄沙師備)	云	『擧古』 31(『慈』中)	
39	980 (玄沙師備)	云	『擧古』 13(『慈』中)	
40	1006(雲門文偃)	上堂云	『慈』下, 62	
41	1016(雲門文偃)	拈古	『擧古』 15(『慈』中)	
42	1035(雲門文偃)	頌古		
43	1128(翠巖令參)	上堂云	『慈』上, 3	
44	1283(智門光祚)	云	『擧古』 32(『慈』中)	
45	1293(法眼文益)	云	『擧古』 7(『慈』中)	
46	1295(法眼文益)	云	『擧古』 29(『慈』中)	
47	1437 (文殊)	拈古	『擧古』 5(『慈』中)	

〈표 16〉『염송집』에 인용된 法眞守一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2 (世尊)	云		104	590 (靈雲志勤)	頌古	
2	5 (世尊)	頌古		105	599 (香嚴智閑)	頌古	
3	16 (世尊)	頌古		106	600 (香嚴智閑)	拈古	
4	18 (世尊)	頌古		107	602 (香嚴智閑)	拈古	
5	21 (世尊)	頌古		108	607 (臨濟義玄)	頌古	
6	31 (世尊)	頌古		109	614 (臨濟義玄)	云	
7	47 (圓覺經)	頌古		110	617 (臨濟義玄)	頌古	
8	55 (金剛經)	頌古		111	637 (睦州道蹤)	云	
9	65 (文殊)	頌古		112	643 (睦州道蹤)	拈古	
10	76 (賓頭盧尊者)	頌古		113	647 (睦州道蹤)	頌古	
11	89 (馬鳴)	頌古		114	666 (德山宣鑒)	拈古	
12	97 (般若多羅)	頌古		115	674 (德山宣鑒)	拈古	단독
13	98 (達磨)	頌古		116	680 (洞山良价)	頌古	『聯』
14	101 (達磨)	頌古		117	689 (洞山良价)	頌古	
15	106 (三祖僧璨)	云		118	690 (洞山良价)	拈古	
16	110 (六祖慧能)	頌古 云		119	706 (洞山良价)	頌古	
17	115 (六祖慧能)	頌古		120	723 (石梯和尙)	拈古	
18	119 (南嶽懷讓)	頌古		121	724 (投子大同)	頌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19	121 (南嶽懷讓)	頌古		122	744 (投子大同)	云	
20	122 (永嘉玄覺)	頌古		123	756 (興化存獎)	云	
21	123 (永嘉玄覺)	頌古		124	767 (定上座)	拈古	
22	130 (慧忠國師)	頌古		125	771 (雲山和尙)	頌古	
23	131 (慧忠國師)	頌古 云		126	778 (　上座)	拈古	
24	146 (慧忠國師)	頌古		127	784 (雪峯義存)	頌古	
25	148 (淸源行思)	頌古		128	790 (雪峯義存)	拈古	
26	164 (馬祖道一)	拈古		129	791 (雪峯義存)	拈古	
27	165 (馬祖道一)	拈古		130	793 (雪峯義存)	頌古	
28	169 (馬祖道一)	頌古		131	812 (雪峯義存)	拈古	
29	178 (百丈懷海)	頌古		132	834 (巖頭全豁)	拈古	단독
30	183 (百丈懷海)	頌古		133	842 (高亭簡)	拈古	
31	184 (百丈懷海)	頌古		134	847 (大隨法眞)	云	
32	185 (百丈懷海)	拈古		135	855 (雲居道膺)	云	
33	194 (麻谷寶徹)	着語云		136	868 (華嚴休靜)	別	
34	205 (南泉普願)	頌古		137	882 (曹山本寂)	頌古	
35	206 (南泉普願)	拈云		138	885 (曹山本寂)	頌古	단독
36	207 (南泉普願)	代云		139	894 (龍牙居遁)	拈古	
37	208 (南泉普願)	拈古		140	898 (龍牙居遁)	頌古	
38	209 (南泉普願)	拈古		141	901 (龍牙居遁)	頌古	
39	215 (南泉普願)	云		142	902 (龍牙居遁)	頌古	
40	218 (南泉普願)	頌古		143	903 (龍牙居遁)	頌古	
41	220 (南泉普願)	拈古		144	911 (白水本仁)	拈古	
42	244 (南泉普願)	拈古		145	912 (白水本仁)	拈古	
43	252 (盤山寶積)	頌古		146	913 (欽山문 ?)	拈古	
44	253 (盤山寶積)	頌古		147	915 (欽山문 ?)	云	
45	255 (歸宗智常)	云		148	919 (越州乾峯)	頌古	
46	271 (大珠慧海)	頌古		149	923 (霍山景通)	云	
47	276 (百丈惟政)	拈古		150	940 (湧泉景欣)	拈古	
48	277 (石鞏慧藏)	頌古		151	946 (洛浦元安)	云	
49	278 (石鞏慧藏)	頌古 云		152	947 (洛浦元安)	云	
50	279 (中邑洪恩)	頌古 拈古		153	977 (? 鑑眞)	拈古	
51	286 (則川和尙)	拈古		154	978 (玄沙師備)	頌古	
52	287 (則川和尙)	拈古	단독	155	979 (玄沙師備)	頌古 頌古	
53	291(西山亮座主)	頌古		156	985 (玄沙師備)	頌古 云	
54	313 (龐居士)	拈古		157	986 (玄沙師備)	頌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55	314 (龐居士)	拈古		158	987 (玄沙師備)	頌古	
56	348 (長髭曠)	拈古		159	988 (玄沙師備)	別云	
57	349 (石樓和尙)	云		160	996 (玄沙師備)	頌古	단독
58	355 (潙山靈祐)	頌古		161	997 (玄沙師備)	頌古	
59	357 (潙山靈祐)	頌古		162	1005 (玄沙師備)	別	
60	359 (潙山靈祐)	拈古		163	1008 (雲門文偃)	頌古	
61	360 (潙山靈祐)	頌古		164	1010 (雲門文偃)	頌古	
62	370 (潙山靈祐)	頌古		165	1014 (雲門文偃)	頌古	
63	372 (潙山靈祐)	頌古		166	1015 (雲門文偃)	頌古	
64	379 (潙山靈祐)	頌古		167	1022 (雲門文偃)	頌古	
65	382 (潙山靈祐)	頌古 拈古		168	1027 (雲門文偃)	頌古	
66	388 (黃蘗希運)	頌古		169	1035 (雲門文偃)	頌古	
67	407 (趙州從諗)	頌古 云	문답 차이	170	1036 (雲門文偃)	拈古	
68	409 (趙州從諗)	頌古		171	1038 (雲門文偃)	拈古	
69	411 (趙州從諗)	頌古		172	1047 (雲門文偃)	云	
70	412 (趙州從諗)	頌古		173	1064 (雲門文偃)	頌古 拈古	
71	417 (趙州從諗)	頌古		174	1080 (雲門文偃)	拈古	단독
72	419 (趙州從諗)	云		175	1081 (雲門文偃)	頌古	
73	429 (趙州從諗)	頌古		176	1083 (雲門文偃)	頌古	
74	453 (趙州從諗)	云		177	1084 (雲門文偃)	頌古	단독
75	458 (趙州從諗)	拈古		178	1087 (雲門文偃)	拈古	
76	477 (趙州從諗)	拈古		179	1109 (長慶慧稜)	拈古	
77	489 (長沙景岑)	云		180	1112 (長慶慧稜)	拈古	
78	493 (長沙景岑)	頌古		181	1118 (鏡淸道怤)	頌古 云	
79	499 (子湖利蹤)	頌古		182	1122 (鏡淸道怤)	拈古	
80	500 (子湖利蹤)	拈古		183	1130(大原孚上座)	頌古	단독
81	503 (鄂州茱萸)	頌古 拈古		184	1131(大原孚上座)	頌古 拈古	
82	505 (池州甘贄)	拈古		185	1132(大原孚上座)	拈古	
83	507 (池州甘贄)	拈古		186	1161 (南院慧顒)	拈古	
84	508(五臺秘魔嵓)	頌古		187	1177 (同安常察)	拈古	단독
85	515 (鎭州普化)	拈古		188	1201 (羅山道閑)	代	
86	532 (道吾宗智)	頌古		189	1203 (木平善道)	頌古	
87	541 (石室善道)	云		190	1218 (王延彬)	云	
88	544 (天仙和尙)	頌古	단독	191	1224 (香林澄遠)	頌古	
89	545 (本生和尙)	拈古		192	1229 (洞山守初)	頌古 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90	549 (龍潭崇信)	頌古	단독	193	1282 (智門光祚)	頌古	
91	561 (石霜慶諸)	拈古		194	1285(蓮花峯庵主)	頌古 拈古	
92	564 (漸源仲興)	頌古		195	1293 (法眼文益)	頌古 拈古	
93	567 (仰山惠寂)	拈古		196	1297 (法眼文益)	頌古	
94	568 (仰山惠寂)	頌古		197	1299 (法眼文益)	拈古	
95	569 (仰山惠寂)	頌古		198	1352 (雪竇重顯)	頌古	
96	570 (仰山惠寂)	頌古		199	1372 (天衣義懷)	頌古	
97	572 (仰山惠寂)	頌古		200	1374 (天衣義懷)	頌古	단독
98	573 (仰山惠寂)	頌古		201	1375 (天衣義懷)	頌古	
99	574 (仰山惠寂)	頌古		202	1427 (金陵寶誌)	頌古	『聯』
100	576 (仰山惠寂)	頌古		203	1429 (傅大士)	云	
101	583 (仰山惠寂)	頌古		204	1430 (傅大士)	拈古	
102	586 (仰山惠寂)	頌古		205	1434 (南嶽慧思)	頌古	
103	587 (仰山惠寂)	頌古		206	1436 (文殊)	頌古	

〈표 17〉『염송집』에 인용된 淨慈善本의 착어 일람표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1	2 (世尊)	上堂云	9	686 (洞山良价)	代云
2	110 (六祖慧能)	小參云	10	818 (雪峯義存)	上堂云
3	221 (南泉普願)	代云	11	864 (雲居道膺)	代云
4	293 (五洩靈默)	小參云	12	866 (雲居道膺)	上堂云
5	502 (子湖利蹤)	云	13	1009(雲門文偃)	上堂云
6	520 (雲巖曇晟)	別云	14	1035(雲門文偃)	上堂
7	633 (臨濟義玄)	頌古	15	1453 (古德)	云
8	672 (德山宣鑒)	頌古	16	1455(肥田庵主)	代

〈표 18〉『염송집』에 인용된 慈受懷深의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출전	비고
1	2 (世尊)	頌古	『聯』 481c15	『가태』 461c4
2	6 (世尊)	拈古		
3	19 (世尊)	上堂擧云	X73-122c	
4	32 (世尊)	頌古	X73-130b	『聯』
5	65 (文殊)	上堂擧云	X73-103b	
6	120 (南嶽懷讓)	頌古	X73-131c	『聯』
7	146 (慧忠國師)	上堂擧云	X73-121c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8	181 (百丈懷海)	頌古	X73-130c	『聯』
9	184 (百丈懷海)	頌古	X73-129c	
10	205 (南泉普願)	頌古	X73-131b	『聯』
11	279 (中邑洪恩)	頌古	X73-123b	『聯』
12	284 (汾州無業)	上堂云	X73-126c~127a	
13	289 (西堂地藏)	上堂擧云	X73-122c	단독
14	370 (潙山靈祐)	頌古	X73-130a	『聯』, 『가태』461b
15	393 (黃蘗希運)	頌古	X73-130a	『聯』
16	408 (趙州從諗)	上堂擧云	X73-128a	
17	411 (趙州從諗)	頌古	X73-130a	『聯』
18	412 (趙州從諗)	頌古	X73-131b	
19	421 (趙州從諗)	頌古	X73-131c	
20	436 (趙州從諗)	頌古	X73-131b	『聯』
21	446 (趙州從諗)	上堂擧云	X73-128b	단독
22	449 (趙州從諗)	上堂擧云	X73-127c	
23	450 (趙州從諗)	上堂擧云		活句 참구
24	453 (趙州從諗)	上堂擧云	X73-126b	
25	455 (趙州從諗)	頌古	X73-131c	
26	457 (趙州從諗)	頌古	X73-129c	『聯』
27	492 (長沙景岑)	頌古	X73-130a	『聯』
28	533 (船子德誠)	小參擧云		
29	568 (仰山惠寂)	上堂擧云	X73-124a	
30	590 (靈雲志勤)	上堂擧云	X73-125b	
31	647 (睦州道蹤)	上堂擧云	X73-128b	
32	687 (洞山良价)	上堂擧云	X73-119c	
33	690 (洞山良价)	上堂擧云	X73-125a	
34	784 (雪峯義存)	小參擧云		
35	791 (雪峯義存)	上堂擧云	X73-121a	
36	795 (雪峯義存)	頌古	X73-130b	『聯』
37	859 (雲居道膺)	上堂擧云	X73-128a	
38	875 (疎山光仁)	頌古	X73-130b	『聯』
39	917 (越州乾峯)	頌古	『聯』662c	
40	984 (玄沙師備)	小參擧云	『聯』670c	송고 앞 생략
41	1014 (雲門文偃)	頌古	『聯』678b	
42	1016 (雲門文偃)	頌古	『聯』680a	
43	1022 (雲門文偃)	頌古	X73-131bc	『聯』
44	1035 (雲門文偃)	上堂擧云	X73-119c	
45	1053 (雲門文偃)	頌古	X73-129c	『聯』, 단독
46	1079 (雲門文偃)	頌古	X73-131a	『聯』
47	1086 (雲門文偃)	頌古	X73-130c	『聯』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48	1087 (雲門文偃)	頌古	X73-131c	『聯』
49	1119 (鏡淸道怤)	頌古	X73-131a	『聯』
50	1133 (孚上座)	上堂擧云	X73-121b	
51	1229 (洞山守初)	頌古		『聯』
52	1230 (洞山守初)	頌古	X73-131a	『聯』, 『가태』461c
53	1282 (智門光祚)	頌古	X73-126c	『聯』
54	1290 (法眼文益)	頌古 上堂云	X73-93c	『聯』
55	1297 (法眼文益)	頌古	『聯』 705c	
56	1373 (天衣義懷)	頌古	X73-129c	『聯』, 단독
57	1430 (傅大士)	頌古	X73-130a	『聯』
58	1434 (南嶽慧思)	上堂擧云	X73-100b	
60	1462 (龐婆)	頌古	X73-130b	『聯』, 단독

〈표 19〉『염송집』에 인용된 知非子 趙抃의 착어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번호	『염송집』 칙수 (조사)	착어	비고
1	10 (世尊)	頌古	단독	34	436 (趙州從諗)	頌古 頌古	
2	28 (世尊)	頌古	단독	35	437 (趙州從諗)	垂問	
3	34 (世尊)	頌古	단독	36	444 (趙州從諗)	頌古	
4	39 (華嚴經)	頌古	단독	37	445 (趙州從諗)	頌古	
5	62 (維摩)	頌古		38	456 (趙州從諗)	頌古	단독
6	94(摩拏羅尊者)	頌古		39	495 (長沙景岑)	頌古	
7	107 (三祖)	頌古		40	499 (子湖利蹤)	頌古	
8	121 (南嶽懷讓)	頌古		41	508(五臺秘魔嵓)	頌古	
9	122 (永嘉玄覺)	頌古		42	512 (鎭州普化)	頌古	
10	130 (慧忠國師)	頌古		43	541 (石室善道)	頌古	
11	135 (慧忠國師)	頌古		44	552 (金華俱胝)	頌古	
12	169 (馬祖道一)	頌古		45	555 (石霜慶諸)	頌古	
13	172 (石頭希遷)	頌古		46	558 (石霜慶諸)	頌古	
14	176(終南山惟政)	頌古	단독	47	567 (仰山慧寂)	頌古	
15	178 (百丈懷海)	頌古		48	590 (靈雲志勤)	頌古	
16	189 (魯祖寶雲)	頌古		49	614 (臨濟義玄)	頌古	
17	238 (南泉普願)	頌古		50	617 (臨濟義玄)	頌古	
18	273 (洪州水潦)	頌古		51	637(睦州陳尊宿)	頌古	
19	294 (浮盃和尙)	頌古		52	671 (德山宣鑒)	頌古	
20	302 (華林善覺)	頌古		53	686 (洞山良价)	頌古	
21	319 (龐居士)	頌古		54	747 (鳥窠道林)	頌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22	336 (藥山惟儼)	頌古		55	783 (雪峯義存)	頌古	
23	347 (長髭曠)	頌古		56	785 (雪峯義存)	頌古	
24	355 (潙山靈祐)	頌古		57	826 (巖頭全豁)	頌古	
25	356 (潙山靈祐)	頌古		58	829 (巖頭全豁)	頌古	
26	365 (潙山靈祐)	頌古		59	904 (龍牙居遁)	頌古	
27	389 (黃蘗希運)	頌古		60	914 (흠산)	頌古	
28	403 (古靈神贊)	頌古	단독	61	923 (霍山景通)	頌古	
29	406 (趙州從諗)	頌古		62	970 (保福從展)	頌古	
30	412 (趙州從諗)	頌古云		63	1107 (長慶慧稜)	頌古	단독
31	419 (趙州從諗)	頌古		64	1249 (風穴延昭)	頌古	
32	430 (趙州從諗)	頌古代云		65	1459 (大宋皇帝)	頌古	
33	434 (趙州從諗)	頌古		66	1460 (大宋皇帝)	頌古	

Ⅳ. 맺음말

종래 고려 선종사 연구는 임제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북송대 선의 주류를 차지하였던 운문종의 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불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운문종과 교류하였고, 운문종의 선적이 다양하게 수용, 간행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운문종의 선이 고려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문종은 북송 시기에 선종을 주도하였으며, 문자선이라는 새로운 선의 흐름을 제창하였다. 운문종의 선과 어록은 고려중기에 이르러 서서히 수용되었다. 이자현은 『설봉어록』을 통해 깨달았고, 운문문언과 설두중현의 사상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어 11세기말에 혜조국사 담진과 대각국사 의천 등이 입송 유학하면서 운문종의 대각회련, 혜림종본 등과 교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운문종의 선과 어록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안 비평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12세기말에 설두의 송고와 염고가 전국의 선승들을 대상으로 한 담선회에서 강의될 정도로 문자선이 선문 일반에서 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운문종의 선이 고려에 수용되었던 양상은 수선사에서 편찬된 『염송집』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염송집』에 수록된 운문종의 착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어를 전체적으로 분석,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착어의 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선승은 설두중현이지만, 법진수일, 남명법천, 대각회련 등도 대단히 많다. 이들은 운문종의 법계에서 설두중현 - 천의의회 - 혜림종본 계열이며, 설두의 법계가 운문종을 주도한 것과 일치한다. 둘째, 운문종의 착어는 대개 설두 이전에 염고의 비중이 높았지만, 설두 이후에는 송고의 비중이 높아졌다.

셋째, 『염송집』에 수록된 송대 선적의 착어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임제종의 착어가 가장 많지만, 북송 시기에는 운문종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염송집』에 수록된 운문종 선승들의 착어는 대부분 逸書 자료로서 북송대 운문종의 어록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송대 선종사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 다섯째, 수선사가 『염송집』을 편찬하면서 수록한 운문종의 착어는 기본적으로 문자선의 이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자선으로 귀결되기 이전의 운문선의 본질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수선사가 『염송집』을 편찬하면서 운문종의 어록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자선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선사가 문자선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였던 것은 『선문삼가염송집』을 1246년에 간행하였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염송집』의 편찬 수준이나 공안집의 수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선사 단계에서 간화선의 수용과 이해 문제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운문종의 선에 대한 관심이나 영향은 一然의 저술이나 고려말까지 간행된 선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아울러 『염송집』을 통해 수선사의 문자선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대혜종고, 원오극근을 비롯한 선승들의 어록이나 임제종의 선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참고문헌

1. 자료

『禪門拈頌集』 고려대장경 46책(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한국불교전서』 4~6(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大正新脩大藏經(도쿄: 大藏出版, 1928)
新撰大日本續藏經(도쿄: (株)國書刊行會, 1986)

2. 논저

鄭修芽, 「慧照國師 曇眞과 '淨因髓' -北宋禪風의 수용과 高麗中期 禪宗의 부흥을 중심으로-」『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1994).
조명제, 「고려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역사와 경계』 44(2002).
조명제, 「一然의 선사상과 宋의 禪籍」『보조사상』 33(2010).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宗門統要集』」『보조사상』 34(2010).
조명제, 「『禪門拈頌集』의 편찬과 『禪宗頌古聯珠集』」『불교학보』 62 (2012).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한국사상사학』 42 (2012)
入矢義高, 『增補 自己と超越』(도쿄: 岩波書店, 2012).
小川隆, 『續·語錄のことば 『碧巖錄』と宋代の禪』(교토 : (財)禪文化硏究所, 2010).
小川隆, 『語錄の思想史』(도쿄 : 岩波書店, 2011).
椎名宏雄, 「『古尊宿語錄』 正續諸本の系統」『曹洞宗硏究員硏究生硏究紀要』 13(1981).
椎名宏雄, 「『雲門廣錄』とその抄錄本の系統」『宗學硏究』 24(1982).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硏究』(도쿄 : 大東出版社, 1993).
椎名宏雄, 「『禪門拈頌集』の資料價値」『印度學佛敎學硏究』 第51卷 第1號(2002).
椎名宏雄, 「『慈覺禪師語錄』(翻刻)」『駒澤大學禪硏究所年報』 20(2008).
椎名宏雄, 「長蘆宗賾撰『慈覺禪師語錄』の出現とその意義」『印度學佛敎學硏究』 57卷 2號(2009).
永井政之, 「雪竇の語錄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雲門宗硏究のための文獻整理-」『駒澤大學大學院佛敎學硏究會年報』 6(1972).
永井政之, 「祖庭事苑の基礎的硏究」『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 4, 駒澤大學 佛敎學部(1973).
永井政之, 『雲門(唐代の禪僧 11)』(교토: 臨川書店, 2008).
西口芳男, 「黃龍慧南の臨濟宗轉向と泐潭懷澄 - 附錄『宗門摭英集』の位置とその資料的價値」『禪文化硏究所紀要』 16(1990).
柳田聖山, 「古尊宿語錄考」『花園大學硏究紀要』 2(197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Abstract

Compilation of『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by Suseonsa(修禪社) and Zen Analects of Unmun Sect(雲門宗)

Cho, Myung-Je*

Unmun sect(雲門宗) led meditation school in the period of North Song and created a new flow of Seon called A work on zen talks.『SeonmunYeomsongjip』collectively shows aspects of accepting Seon of such Unmun Sect in Goryeo.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arranging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listed on『SeonmunYeomsongjip』on a whole scale, these could be known as below.

First. Most quoted Seon master in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is Seoldujunghyun but Beopjinsuil(法眞守一), Nammyeongbeopcheon(南明法泉), Daegakhoiryun(大覺懷璉) etc. were also much quoted. They belong to line of Seoldujunghyun(雪竇重顯) – Cheonuiuihoi(天衣義懷) – Hyerimjongbon(慧林宗本) in dharma lineage of Unmun Sect. This also coincides with that dharma lineage of Seoldu(雪竇) led Unmun Sect.

Second, portion of to raise an ancient precedent in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of Unmun Sect was high before Seoldu. But after Seoldu, portion of to attach one's own verse to an ancient precedent became higher.

Third,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of Linji school is most in total in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of Seon related material in the Song dynasty listed in『Yeomsongjip』. But portion of Unmun Sect was high in the period of

* Silla University / woongok@silla.ac.kr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

North Song.

Fourth,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for zen meditation of Seon masters of Unmun Sect listed on『SeonmunYeomsongjip』is mostly material which is not extant now. Because such material let reorganize Zen analects of Unmun Sect in North Song, it has a value as a material to study meditation school history in Song dynasty.

Fifth, Because comment on a catechetic question of Unmun Sect listed on『SeonmunYeomsongjip』edited by Suseonsa is basically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of A work on zen talks, it is far from essential character of Unmun Sect before A work on zen talks.

Key Words 『Seonmunyeomsongjip(禪門拈頌集)』, Suseonsa(修禪社), Zen analects of Unmun Sect(雲門宗 語錄), A work on zen talks(文字禪), Seoldujunghyun(雪竇重顯)

논문투고일 : 2014.2.15 논문심사일 : 2014.3.5 게재확정일 : 2014.3.1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8 10:58(KST)